

# 교회소식

- Covid 19 락다운으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하반기 공동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때에 말씀과 은혜의 삶으로 채우시기 축복합니다.  
범위: 사사기 19장 - 욥기 18장 (매일 3장)
- 이번 주 공동체별 화상 모임은 차드와 베트남 공동체입니다(매주 화, 목 오후 8시).  
화 - 차드 공동체 (인물연구: 요셉)  
목 - 베트남 공동체 (인물연구: 갈렙)
- 매일 저녁 9시 성전 이전을 위한 기도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 락다운이 속히 해제되어 성전 이전을 위한 활동이 자유롭도록.
  -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도록.
- 최희숙 집사(김수원 집사) 친정어머니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 주일예배는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이나 카톡 방을 통해 전달된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예배 순서 주보 참조).
- 온라인 헌금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예금주: Calvary Church  
은행구좌: ASB 12-3042-0352091-00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eptember

## 교회사역일지

9월 5일(주일)  
인도자 성경 공부  
9월 26일(주일)  
성찬 주일  
권사 기도회  
9월 30일(수)  
선교회 주관 예배

## 기도순서

9월 19일 (주일)  
박병민 장로  
9월 22일 (수)  
김은희 집사  
9월 26일 (주일)  
손조훈 집사  
9월 29일 (수)  
김자경 권사

## 예배봉사자

예배 안내  
박제용, 김영옥  
새신자 안내  
차영철, 심경순  
주차 안내  
민광호  
주방 봉사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허영순,  
박혜정

70 Khyber Pass Road,  
Grafton, Auckland

T 09 369 5077

M 021 968 388

E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http://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http://www.koreaniptv.co.nz)



해 / 외 / 한 / 인 / 장 / 로 / 회  
**갈보리교회**  
창립 1999/07/18

오직  
기도와  
말씀  
으로  
빌립보서 4:6

##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 예배 11:30 am  
청년찬양예배 2:00 pm  
유아부 11:30 am  
아동부 11:30 am  
청소년부 11:30 am  
수요예배 7:30 pm  
금요기도 7:00 pm

##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훈  
전도사 김양이

23권 37호 2021.09.12

**주일예배** 1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태한 목사  
2부 오후 2시 (청년찬양예배) 이성훈 목사

찬양	Praise		주일찬양단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시편 138:1-2	인도자
찬송	Hymn	43장	다함께
참회의기도	Prayer of Repentance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Hymn	365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김병진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에베소서 3:14-21	인도자
특송	Special Hymn	최고의선물	아동부
설교	Sermon	교회공동체를 위한 기도 2	이태한 목사
찬송	Hymn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다함께
헌금기도	Offering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공동성경읽기	Closing Scripture		다함께
응답송	Closing Hymn	171장 (1절)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 선교란

##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자 여러분께,

자비하신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전히 빛으로 임하고 계시기에 지금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코로나 변이가 피지와 파푸아뉴기니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에 확진자가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바누아투는 더 강력한 봉쇄로 상황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두려워하던 현지인들이 마음을 바꾸어 맞고자 하나 에파테섬을 제외하고는 다른 섬들은 어렵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많은 리더들을 잃었습니다.

평소에 현지 형제자매들로부터 ringworm, white spot과 같은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병 치료를 위한 연고가 없느냐고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참석차 각 섬에서 온 노회별로 약품을 조금이라도 전달할까 했습니다. 기도 중에 먼 곳 작은 섬들에서 하루 종일 정글을 지나 배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씩 전달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 주셨고 NGO 단체를 통하여 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700개 세트를 만들어 총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여 전도회 회원들에게는 작은 비누도 한두 개씩 돌아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바누아투에서 지난 10년간 수고한 호주 선교사인 톰 목사와의 총회 기간 동안 바누아투 선교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톰牧사는 탈루아 신학교 Academic Dean으로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수립하였습니다. 총회를 마친 후 탈루아 신학교 분교 교수들과 함께 이틀간 교육과정과 평가에 대하여 세미나를 참여하여 신학교 성경교육 전반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누아투 작은 교회와 마을과 가정을 살리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새로워지도록 소망합니다. 저희가 바누아투의 현실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 기도제목

1. 사무총장과 여전도회장으로 선출된 콜린 목사 부부, 성서공회 버나드, 순회 돌봄 레이나마우 목사 등 리더로 잘 세워지도록.
2. 정부가 교회의 일에 많은 개입을 하는데 선한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찬	양	Worship	수요 찬양단
기	도	Prayer	김영아 집사
성경봉	독	Scripture	베드로전서 1:3-7
설	교	Sermon	<b>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b> 이태한 목사
찬	송	Hymn	-
주	기도	The Lord's Prayer	다같이

# 나눔란

## 2021년 9월 5일 주일예배 설교말씀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 10:6-14

앞 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이지만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국가들이(10:2)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달려갔지만(7) 적정과 불안함이 앞설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 말씀으로 위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8). 하나님은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인을 무너지게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신앙의 기쁨을 사리지게 하며 체질이 되어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합니다. 혼자였던 아브라함을 수백만 백성의 선조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초라한 시작을 위대한 결말로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에덴같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사 51:3) 우리가 황폐하기 이전 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으로 회복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사 66:13).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에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넘겨주겠다 하신 위로의 말씀은(8) 이미 승리를 배달해 주셨다는 선포입니다.

**2) 직접적인 행동으로 위로:** 여호수아를 피해 도망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죽이셨는데 같이 아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11).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적군을 “패하게, 살육하고, 추격하는” 주어는(10)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14).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박을 보며 감격했을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박이 우연이라 하겠지만 우연이라면 가난한 연합군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우연이라 해야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시 53:1). 나는 급한데 하나님의 행동이 지체된다고 염려하지 말고 우박을 손에 들고 기다리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3) 환경으로 위로:** 밤이 오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하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영광을 온 백성과 찬양하고 싶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하셨습니다(13). 많은 불신자들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잡으시면 태양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가나안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우박이 내리고 해가 지지 않는 모습에 믿는 자들의 고달픔은 한꺼번에 씻겨내립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시 50:15). 이런 신앙의 감격이 있는 우리 삶을 보며 자녀들이 자라나야 합니다. 말로는 믿는다 하며 어려운 일 앞에 두려워하면 자녀들도 신앙 따로 삶 따로 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기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태양과 달을 멈추게 기도한 것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능력을 믿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히 11:6).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친히 만드신 자연 질서까지 멈춰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행동, 환경뿐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행 18:2). 사도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위로자로 보내주신 것처럼(행 18:2, 롬 16:3-4)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에 위로의 선물로 다가가는 위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금주의 공동 기도 제목

1. 현실의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2. 락 다운 중에도 예배에 성령 충만과 교회학교 양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3. 고난과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도록.